



사회구성주의적 장애 연구의 비판적 고찰 : 상대주의와 반실재론적 성격을 중심으로

이 주 화*

A Critical Review of Social Constructionist Disability Studies : Focussed on the Relativistic and Anti-Realistic Characteristics of Social Constructionism

Lee, Ju-Hwa*

ABSTRACT

[Purpose] This article aims to review and critically examine social constructionist disability studies,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relativism and anti-realism that are the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s of social constructionism. **[Method]** Social constructionist disability studies with typically relativistic and anti-realistic characteristics were selected and analyzed in detail. **[Result]** By denying the absolute and objective Truth and emphasizing the possibility of alternative perspectives, the relativistic epistemology on which social constructionism is based appears to be liberating. However, it is hard to avoid the criticism that “anything goes“, and relativism eventually faces a political and ethical dilemma. Poststructuralist disability studies analyze how subjects with impairments are materialized and naturalized through the regulatory practice of power, which reveal their anti-realistic characters. Poststructuralists emphasize that they do not deny materiality but they do not discuss this in detail, and instead of improving reality and presenting effective alternatives, they demonstrate the limitation of remaining only as observers and commentators. They criticize the disability movement that advocates identity politics on the basis of impairment and emphasize the deconstruction of identity. **[Conclusion]** To overcome the problem of oppression and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ople, predicaments due to impairment should be considered, which should be combined with the efforts to eliminate socioeconomic, psychological, and cultural barriers. Disabled people should be the subject of this whole process.

Key Words : Social constructionism, Relativism, Anti-realism, Poststructuralism, Social model of disability

* 제 1저자, 독일 뷤르츠부르크대학 특수교육학 박사(juhl9338@gmail.com)
Ph.D., Sonderpaedagogik, Uni-Wuerzburg

I. 서론

1990년대 후반 영국의 사회적 모델이 우리나라에 소개될 즈음 이 모델이 태동한 영국에서는 이미 이 모델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게 대두되어 영미권 장애학 논의의 폭이 점점 확대되기 시작했다(Crow, 1996; Hughes & Paterson, 1997; 1999; Shildrick & Price, 1996; Tremain, 2001; 2002). 이 장애학 내 논의에서 사회적 모델을 비판한 대표적인 입장 중 하나가 바로 사회구성주의적, 보다 구체적으로 후기구조주의적 장애 연구이다. 국내 장애학에서는 사회구성주의와 관련해서 2020년말 「푸코와 장애의 통치」(트레마인 2020)가 번역된 것 이외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장애학 관련 논의가 주로 사회적 모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조한진 2011; 이지수 2014; 김도현 2019), 영미권에서 이 모델을 비판한 사회구성주의 논의를 함께 살펴보는 것은 국내에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장애학 논의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이론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매우 필요한 일이다.

한편, 사회구성주의적 장애 연구는 비교적 신생학문인 장애학 내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특히 교육학이나 심리학 분야에서 상대주의적 인식론에 근거하여 장애라는 객관적 실체를 부정하고 그 낙인효과를 강조하며 긍정적이고 대안적 관점을 모색하려는 노력들이 꾸준히 있어왔다. 장애와 관련한 사회구성주의 논의에서 이같은 연구의 흐름을 간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장애학 내외의 사회구성주의적 장애 연구들을 검토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사회구성주의 용어가 지니는 모호성에 대해 잠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사회구성주의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 매우 광범위하게 수용되어 있다. 그러나 그 실체나 학문적 계보가 모호하고, 분야별로 연구 문제 및 방법론이 다양하여(Burr, 2015a; Danziger, 1997) 하나의 통일된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분야를 한정지어 장애의 사회적 구성만 살펴보더라도 이와 관련한 요소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기란 쉽지 않다. 장애학에서도 사회구성주의가 하나의 이론틀로 소개되고 있고(Priestley, 1998; Gustavsson, 2004), 장애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주장이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함의는 매우 다면적이다. 이는 장애의 사회적 구성과 관련한 요소 자체가 광범위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에 대한 이해가 연구자별로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웬델, 2018).

심지어 상이한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는 잘못된 이해도 발견된다. 사회구성주의를 개관한 글에서 Burr(2015a)는 장애학에서의 사회구성주의를 영국의 사회적 모델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Burr가 장애는 개인의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 생성된다는 사회적 모델의 기본 입장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장애학 내에서 사회구성주의는 사회적 모델의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손상-장애 이분법을 정조준하여 비판함으로써 두 입장 간 차이를 부각시키고 있다.

사회구성주의가 분야나 연구자별로 다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과 별도로 constructionism과 constructivism이 혼용되고 있는 용어상의 혼란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에 social constructivism과 social constructionism이 모두 사회구성주의로 번역되어 번역문만 보아서는 원문에서 두 용어 중 어떠한 것을 사용했는지 구별하기 어려운데, 이것은 단순히 번역상의 문제는 아니다. 영미권 내에서도 두 용어를 둘러싼 혼란은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원문의 제목을 바꾸어 인용하거나(Jones, 1996) 한 논문 안에서 두 용어를 혼용한 사례도 있다(Söder, 1989). 이러한 혼란과 관련하여 두 용어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Spivey, 1997; Lynch, 1998; Hacking, 1999), 두 용어를 구분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다(Burr, 2015a; Young & Collin, 2004; Harper, 2011; Hruby, 2001; Gergen, 2020).

이 같은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회구성주의들 사이에 공통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사회구성주의가 상대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인식론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사회구성주의에 따르면 지식이란 외적 실재(external reality)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곧 반실재론, 즉 외적 실재가 단순히 허구라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매개로 하지 않고는 그 외적 실재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어진다. 사회구성주의에서 언어와 담론이 강조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은 사회구성주의의 이 두 가지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앞서 언급한 두 용어 constructivism과 constructionism의 차이를 간략히 살펴본 후 사회구성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이자 논쟁점이기도 한 상대주의와 반실재론적 성격을 두 축으로 하여 장애학 내외의 사회구성주의적 장애 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도록 하겠다. 본 논문은 장기간의 다양한 사회구성주의적 장애 연구 문헌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사회구성주의의 두 특징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 두 가지 특징을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문헌을 선별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용어의 문제

: (social) constructivism(s) vs. social constructionism

Hacking(1999)은 구성주의가 흔히 서로 대조되는 constructivism과 constructionism에 더해 constructionalism까지 세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들의 차이보다 공통점에 더 주목한다. 세 용어가 서로 다른 연구 분야, 즉 constructivism은 수학, constructionalism은 심리학, constructionism은 사회학, 역사학, 철학 등 인문 사회과학에서 각각 사용되었을 뿐으로, “이 ism들을 특징짓는 주제나 관점들은 별로 다르지 않다”(p. 48)는 것이다. Hacking은 세 용어를 포괄하는 신조어를 사용하여 모든 “construct-ism”들이 “꾸며진 실재, 보통 사람들이 실재라고 간주하는 것에 대해 인습 타파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p. 49)된다며 이들의 공통된 특징을 부각시켰다. Lynch(1998)는 심지어 광범위하게 social constructionism이 사용되는 맥락에서조차 social constructivism 용어를 채택하며 별다른 설명도 없이 후자에 두 용어가 동의어라고만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두 용어의 용례 차이에 주목하여 이 둘을 구분하려는 시도도 있다. 두 용어를 대조시킬 경우 대개 constructivism은 특별한 수식어 없이 때때로 복수형으로, constructionism은 ‘social’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제시되는데(Speed, 1991; Harper, 2011; Hruby, 2001; Burr 2015a), 이는 전자가 ‘사회 구성주의에 국한되지 않고 후자는 지식의 구성과정에서 특별히 ‘사회’적인 성격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constructivism은 인지 및 발달심리학의 여러 구성주의 이론, 즉 인지적(cognitive), 급진적(radical), 사회적(social) 구성주의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다. 전자의 두 구성주의는 인식주체의 능동적 지식 구성을 강조하는데, 특히 급진적 구성주의는 외적 실재와의 대응을 전제로 하는 지식의 진리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며 지식구성 주관성을 극도로 강조한다. 반면, Vygotsky의 발달심리이론에 기반을 둔 social constructivism은 지식의 사회·문화적 성격과 지식 구성에 있어 사회적 상호작용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 사회에 축적되어온 지식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에게 어떻게 내면화되는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위의 세 가지 constructivism 중 social constructivism은 지식 구성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social constructionism과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나 social constructivism이 결국 지식의 개인적 내면화, 즉 개인의 인지과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식 구성의 사회적 과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social constructionism과 차이를 드러낸다(cf. 김성에 2004; 채희태 2005; 홍은숙 2007).

Young & Collin(2004)은 social constructionism이 지식 구성에 수반되는 “인지적 과

정에 관심이 덜하거나 아예 무관심하다”(p. 376)고까지 단정한다. Hruby(2001) 또한 constructivism은 지식 구성을 “머리 안에서”, constructionism은 “머리 밖 사회적 관계 참여자들의 사이에서”(p. 51) 다루고 있다고 지적한다. Gergen(2020) 역시 constructivism이 지식의 기원을 “개인의 머릿속에” 두는 반면, constructionism은 “사회 과정”에 둔다(p. 40)고 단정한다. Gergen과 같은 사회구성주의적(social constructionist) 심리학자는 인간의 개인이나 종으로서의 본질을 인정하지 않고 인격이나 정체성 개념의 위상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존의 주류 심리학과 달리 인지, 사고, 감정, 기억, 태도 등 개인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Burr, 2015a). 미시적 차원의 social constructionism이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개인 간 대화와 같은 상호작용 그 자체인 것이다. 후기구조주의와 같은 거시적 차원의 social constructionism을 보면 두 용어의 차이는 더욱 뚜렷해진다. 후기구조주의에 의하면 개인이 인식의 주체로 간주되지도 않을뿐더러, 지식의 구성 과정에서 개개인의 역할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구분 방식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것과 상반되는 사례가 발견된다. Papert(1980)는 Piaget의 constructivism을 계승하면서도 자신의 이론을 이와 차별화하기 위해 constructionism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경우 개인의 인지과정을 논하는 맥락에서 constructionism이 사용된 것이다. 앞서 언급한 Lynch(1998)는 constructionism이 지배적인 맥락에서 constructivism을 사용한 경우이다. 이 같은 사례는 확실히 두 용어의 명료한 구분을 어렵게 만든다.

무엇보다 이러한 반례는 차치하더라도 두 용어 간 “애매모호함”(Young & Collin, 2004, p. 378)은 기본적으로 불가피하다. Burr(1995a)도 언급하였지만, social constructionism 내 다양한 관점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것은 소위 “가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 정도로 이는 윤곽이 불분명한 “퍼지집합(fuzzy set)”(p. 5)을 형성할 뿐이니, 두 용어 사이의 명료한 구분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다. 두 용어를 구분하고자 했던 Young & Collin(2004)이나 Hruby(2001)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식의 구성에 있어 constructivism(s)은 개인의 인지과정에, social constructionism은 미시적 차원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든 거시적인 사회구조적 차원이든 사회적 과정에 각각 방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Burr, 2015a; Gergen, 2020).

본 논문은 개인의 인지과정보다 장애 발생의 사회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즉 social constructionism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단, social constructivism이나 social construction 용어를 사용한 학자의 논의 중에서도 장애의 발생과 관련하여 개인의 인지과정보다 관계성과 맥락성을 강조하는 논의는 포함시켰다(Biklen & Duchan 1994; Dudley-Marling 2004; Molloy & Vasil 2002).

III. 상대주의

1. 상대주의적 장애 연구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 그러하듯 사회구성주의도 장애를 개인의 병리적 문제로 치부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한다. 그러나 영국의 사회적 모델이 장애를 사회의 물질적 생산구조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았다면 사회구성주의는 인식론적 차원에서 실재에 관한 지식의 위상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장애의 개인적 모델에 반기를 든다.

사회구성주의는 실재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을 경험적 관찰로 습득할 수 있다는 실증주의를 강하게 비판한다. 사회구성주의에 의하면 실재에 관한 궁극적이며 객관적인 하나의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역사적·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가능하다. 흔히 지식 혹은 사실이라 명명되는 것들은 외적 실재의 본질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 구성된 것으로 다양한 이해 및 권력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Gergen(2020)은 “진실이 특정 전통의 영역을 벗어나면 탄압과 갈등, 억압이 생겨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시공간을 떠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우주적 진리(Truth)” 개념을 폐기하고, “다수의 진실들(truths)”로 대체할 것을 역설한다(p. 16). 따라서 사회구성주의적 연구는 특히 기존의 진리로 간주되는, 혹은 객관적인 권위가 부여되는 전문가의 지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지식이 산출된 특정 역사적·문화적 맥락과 그 저변에 놓인 권력관계를 폭로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실재의 본질과 이에 대한 하나의 절대적인 설명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사회구성주의적 인식론은 반본질주의와 상대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장애 역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본질이 없는 맥락의존적인 구성물일 뿐이다. 따라서 많은 사회구성주의적 연구자들은 장애를 개인의 병리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하는 의료적 모델의 생물학적 환원론을 강하게 비판함과 동시에 장애의 구성적 성격을 드러내고 기존의 장애 범주의 억압성을 폭로한다.

사회구성주의에 의하면 “세상에 대한 이해는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맥락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생물학적 사실 역시 “맥락, 관계, 제도, 상황들 밖에서 의미 있게 이해될 수 없다”(Jones, 1996, p. 351). Jones는 장애와 생물학적 손상을 동일시하는 의료적 모델을 비판하면서 장애는 단지 의료적 조건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현상으로 파악한다. “장애라고 믿어지는 많은 부분이 비장애인들이 부여한 의미들에서 비롯된다”(p. 350)는 것이다.

Biklen & Duchan(1994)에 의하면 실재는 “경험적 현상”으로 정신지체 역시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누가 어떤 상황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p.177). 진리는

“해석의 문제”일 뿐으로 관찰자의 “경험적 배경, 상황적 조건, 해석이 생성되는 문화적 맥락”(p. 177)에 따라 사안이나 사건은 다르게 구성된다. 하나의 실체에 대한 절대적인 해석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Dudley-Marling(2004) 또한 학습장애가 개인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병리적 현상이라는 학계의 지배적인 시각을 비판하며, 학습과 학습 문제가 제도와 사회적 관계의 맥락 속에서 발생한다는 사회구성주의적 시각을 견지한다. 학습장애는 개인의 내재적인 특성이 아니므로 독립적으로 발현할 수 없고, “학교라는 제도 안에서 수행되는 복합적인 사회적 상호작용”(p. 483)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다.

Molloy & Vasil(2002)은 장애 범주가 사회적 상호작용과 제도라는 맥락에서 생성되었다는 시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 범주를 둘러싼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은 장애가 “병리적인 상태”이며, 진단은 “객관적이고 유용한 실체”이고, 특수교육이 “진단된 학생들의 유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되고 조정된 서비스 시스템”이라는 전통적인 시각을 뒤집고 “하나의 범주가 애초에 왜 등장하였으며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가”를 묻는다(p. 665). Molloy & Vasil은 아스퍼거 증후군이 “특수교육적 범주로서의 가치”(p. 665) 때문에 수용되고 있다며, 학교, 특히 특수교육서비스가 이 장애 범주가 구성되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학생의 소위 “특수한 필요”는 학생의 행동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학교나 부모 외에 학생의 정상화와 재활을 목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교사 및 치료사와 같은 전문가의 필요 및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을 뿐이다(p. 666).

Gergen(2020)은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SM) 상의 정신질환 분류가 “의학의 권위 그리고 보험사와 제약회사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며, “성서”와 같은 권위가 부여된 이 편람이 “특정 집단이 특정 역사적 시기에 갖는 가치를 포함한 문화적 구성물”임을 분명히 한다(p. 242).

요컨대, 이들 일군의 사회구성주의적 학자들에 의하면 장애는 여러 이해관계로 얽힌 사회적 상호작용과 제도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며 객관적인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들은 장애 진단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측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생물학적 결함과 병리적 특성을 중립적으로 기술하고 분류할 수 있다는 기존의 의료적 모델의 전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이들은 또한 장애가 단지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입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 범주의 낙인효과와 억압적 성격에도 주목한다.

Biklen & Duchan(1994)은 실재를 객관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는 정신지체라는 진단 범주가 결국 개인의 “주거와 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별”의 역할을(p. 174)할 뿐이라고 단정한다.

Molloy & Vasil(2002)은 본의와 무관하게 붙여진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라벨이 이

범주로 진단받은 학생들에게 끼치게 될 영향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 학생들이 “아동기의 중요한 부분을 자신이 이 라벨을 지니고 있음을 배우게 될 것이고 자신이 개인적인 병변 혹은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된다는 사실에 체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p. 668).

Gergen(2020) 역시 “현상에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이 자기 충족적으로 실현”(p. 32)되는 낙인효과에 주목한다. 정신의학자들과 관련 종사자들에 의해 구성되었을 뿐인 정신질환자들이 정신질환자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다. Gergen은 또한 이렇게 어느 한 현상이 실제로 인정되면 다른 가능성이 차단되고, 그것이 특정한 혹은 특정 집단을 배제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한다. “실재에 대한 주장은 (...) 실상 억압하는 기능”(p. 314)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구성주의자들은 장애 진단을 통해 붙여진 꼬리표가 객관적이고 자연적 사실인 양 낙인이 되어 당사자 본인은 물론 자신과 관련 있는 주변 인물들의 사고와 행동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배제와 차별을 양산하는 사태를 무엇보다 강하게 비판한다. 따라서 이들은 상대주의적 입장을 견지하여 다른 집단을 억압할 수 있는 하나의 절대적 해석을 부정하고 재협상과 재구성의 가능성을 역설하는 것이다(Burr, 2015b; Gergen, 2020; Yang, L. & Gergen, K. J. 2012). 개인의 병리적 문제로 치부되었던 장애가 실제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그 실체의 본질이 없고 단지 특정 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 구성되었을 뿐이라면, 요컨대 우리가 아는 장애란 없다면, 아무 근거 없이 장애인을 억압해온 범주화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상기 저자들은 장애로 진단 받은 자들을 생물학적 결함이나 병리적 문제보다 각 개인이 지닌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을 촉구한다(Biklen & Duchan, 1994; Dudley-Marling, 2004; Molloy & Vasil, 2002).

2. 상대주의 인식론의 맹점

사회구성주의는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고 다양한 대안적 관점이 존재함을 강조하므로 일견 해방적이다. 당연한 사실로 간주되는 지식이 특정 집단에 억압적으로 작용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다양한 대안적 관점들에 동등한 타당성을 부여하게 되면 소위 “무엇이든 허용된다(anything goes)”(Gergen, 1985, p. 273; Burr, 1998, 22)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Burr(1998)가 사회구성주의자들의 주요 관심이 “주변집단의 사회적 공간을 확대”시키는 데 있다고 할 때, 여기에 “국민 전선(the National Front)”과 같은 극우집단 역시 포함되는지와 같은 다소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도 이같은 비판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p. 14). 장애와 장애인이라는 범주는 구성된 것으로 선입견이며

편견일 뿐이라는 사회구성주의적 입장 역시 바로 이것이 근거하고 있는 상대주의에 의해 그 기반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즉, 상대주의적 인식론은 개인의 병리적 현상에 근거하여 장애를 진단하고 범주화하는 의료적 모델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해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입장 역시 동등한 타당성을 지니는 하나의 대안적 관점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결국 정치적·윤리적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구성주의자들은 이 같은 비판이 상대주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반박한다(Burr, 2015b). 대표적인 상대주의 옹호자인 Gergen은 상대주의에 대한 비판이 “실재에 대한 진술들이 모두 동일하다”(Yang & Gergen, 2012, p. 132) 혹은 “무엇이든 허용된다”(Gergen, 1985, p. 273)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있으나 사실상 “그 어느 누구도 실제 이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Yang & Gergen, 2012, p. 132)며 이 비판에 정면 대응한다.

특정 목적 하에서는 분명히 어떤 기술들(descriptions)이 다른 것들보다 낫다. 그러나 모든 것이 동일하다는 것은 아니다. 절대 동일하지 않다. 모든 것은 항상 맥락 속, 실천 속, 전통 속에 있다(Yang & Gergen, 2012, p. 132).

Gergen은 도덕적 상대주의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점을 적용하며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내가 아는 한 “모든 도덕적 가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구성주의자는 아무도 없다. 다양한 도덕적 전통이 있음을 이해한다고 해서 바로 “이 모두가 동일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오히려 대부분의 구성주의자 동료들은 나와 생각이 비슷하다. 특정 삶의 방식을 다른 것보다 선호한다. 우리가 지지하는 가치를 상대적으로 좋게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세상을 이렇게 보길 바란다(Gergen, 2020, p. 322).

그러나 이 ‘동일하지 않다’는 언명은 Gergen 자신도 강조한 것처럼 특정 맥락과 전통 안에서만 그렇다는 것이다. 그 전통을 벗어나면 결국 각각 다른 맥락과 전통 속에 위치한 수많은 진실들(truths)과 도덕적 가치들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사회적 전통을 넘어버리면 이것이 저것보다 현실을 더 잘 반영한다고 주장하기 어렵”(Gergen, 2020, p. 15)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Truth)를 부정하고 이 대안적 진실들과 가치들에 동등한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상대주의의 기본 입장이라고 한다면, 단지 모든 것이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에만 머무르는 Gergen의 반박은 ‘무엇이든 허용된다’는 비판에 대한 명확한 답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안적 관점들의 타당성이 아니라 구성주의에서 강조하는 “유용성”(Gergen, 2020, p. 37)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비판을 피하기란 더욱 어려워진다. 각자의 전통과 맥락

속에 위치한 다양한 관점들의 유용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잣대가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에 대한 적대적인 관점이나 국민전선과 같은 극우집단의 입장 역시 지지자들에게는 유용하고 의미 있는 대안적 관점이 아닌가?

이와 같이 관점들이 대치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Gergen은 대화와 논쟁을 강조하며 이것이 오히려 상대주의의 강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Yang & Gergen, 2012; Gergen, 1985; Burr, 2015b).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대화와 논쟁이 성공적일 경우에 한해서이다. Yang은 Gergen과의 인터뷰에서 각자의 전통 속에 위치한 진실들과 가치들이 서로 대립하거나 갈등하는 상황에서 대화가 실패할 경우 “무엇이 더 나은지 평가하거나 판단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Yang & Gergen, 2012, 133)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하며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해법에 대해 질문한다. Gergen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대안적 대화의 형식”(Yang & Gergen, 2012, 133)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할 뿐이다.

Burr는 상대주의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여 실제의 문제를 보다 비중 있게 다루면서 Gergen과는 차별되는 해법을 추구한다. Burr(1998)는 “하나의 궁극적 진리를 폐기”하게 되면, 그리하여 다양한 대안적 관점들에 동등한 타당성을 부여하게 되면, 그중 하나를 선택하고자 할 때, 예컨대,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어떤 변화를 옹호”하고자 할 때 그 지지기반 역시 “제거”된다고 지적한다(p. 14). 예컨대, “특정 집단이 억압되어 있다”고 할 때, 만약 “이들 ‘집단’ 과 그들의 ‘억압’ 이 구성된 것일 뿐이라면, 따라서 다른 주장과 비교해서 더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어떤 근거로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p. 14). 이러한 문제제기는 여하간의 실제 개념을 상정하지 않고서는 세계에 대한 하나의 입장을 견지하거나 다른 입장을 비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물론 Gergen도 실재를 온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구성주의자들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실재란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죽음이든, 몸이든, 태양이든, 의자든 간에 사람들이 실재라고 말할 때는 늘 특정 관점이나 이해방식에서 말한다는 사실이다(Gergen, 2020, p. 8).

즉, 물질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에 선행하여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외적 실재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Gergen은 실재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존재론적으로 침묵”(Yang & Gergen, 2012, p. 132)할 것을 제안한다. 담론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외적 실재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존재론에 대해서는 논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물질성 자체가 부정된 것은 아니지만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도,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다.

Gergen이 외적 실재에 대해 존재론적 언급을 피하고 지식의 구성적 측면에 집중하는 것도 이같은 연유에서다.

Burr(1998)는 Gergen과 마찬가지로 실재를 담론에 선행하여 독립적으로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담론과 물질성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것을 개별 진술들 즉 구성들이 실재에 입각해 있으므로 단순히 허구가 아니라는 근거로 삼는다. 이에 의하면 특정 집단이 억압되어있다는 주장과 같이 실재에 대한 지식을 생성하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 근거 있는 판단을 내릴 뿐 아니라 사회적 실천에서 저항을 도모하는 것 역시 가능해진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문화적, 역사적으로 특유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사회적 현상들의 이면에 놓인 실재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근거하여 우리 가치들의 적절성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Burr, 1998, p. 24).

우리가 담론과 물질성의 통합이라는 관점을 수용하면 담론 실천의 변화를 통해 사회적 실재에 도전하거나 저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Burr, 1998, p. 20)

존재론적으로 침묵하며 지식의 구성성에 초점을 두는 Gergen과는 달리 Burr는 담론과 분리될 수 없는 '실재'가 수행하는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그 목적은 분명하다. Burr는 담론과 물질성이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무엇이든 허용된다'는 상대주의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Burr의 입장은 실재의 중요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면서도 실재에 대한 지식의 생성, 가치 판단, 그 판단에 대한 방어 등이 결국 특정 가치체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단정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상대주의의 틀 안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실용주의"(Burr, 1998, p. 24)적 입장은 결국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회구성주의의 반실재론적 성격과 함께 다시 한 번 논하도록 하겠다.

IV. 반실재론

1. 반실재론적 장애 연구

앞서 상대주의 논의의 말미에 간략하게 언급하였지만, 반실재론을 물질적인 세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회구성주의자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사회구성주의가 물질성을 부정한다는 비판이 종종 제기되지만, 사회구성주의자들은 이것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한다. Edley(2001)는 ‘텍스트 외부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Derrida의 유명한 언명이 반실재론에 대한 오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사회구성주의자들이 몸의 물질성을 부정”한다고 주장하는 Sampson(1993), Nightingale & Cromby(1999) 등이 이를 “오독”했다고 지적한다(p. 436). Edley에 의하면 이러한 오해는 존재론과 인식론의 혼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담론의 외부에 실재가 존재할 수 없다”는 명제는 인식론적으로 이해해야만 한다(p. 437). 이것은 “우리가 세계에 대해 사유하거나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필연적으로 재현”(p. 437)하게 되며, 언어를 매개로 하지 않고서는 실재에 직접 접근하거나 이를 이해할 방법이 없다는 의미이다. 즉, 실재에 대해 사유하는 순간 이미 그 실재는 담론의 영역에 들어와 있고, 담론을 벗어나 실재에 대해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Edley에 의하면 사회구성주의가 물질성을 부정한다는 비판은 Derrida의 언명을 인식론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수용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Tremain(2001, 2002)는 이와 같이 담론에 선행하는 실재가 없다는 반실재론적 입장에 서서 장애 문제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학자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Foucault와 Butler의 이론에 근거하여 손상이 “생명권력체제의 역사적 인공물”(p. 617)임을 보이는 데 주력한다.

Tremain(2001, 2002)은 우선 영국의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 상정하고 있는 엄격한 손상-장애 이분법을 비판한다. 사회적 모델은 장애의 발생 원인이 사회의 억압적 구조에 있다고 간주하고 이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의료적 모델과 거리를 두기 위해 손상과 장애 개념을 구분하고 후자에 초점을 맞춘다. 손상은 단지 신체의 특징일 뿐으로 장애의 발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Tremain(2001)은 아무리 사회적 모델이 손상과 장애를 구분하고 두 범주의 인과성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즉, “장애화가 손상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며 손상은 장애의 충분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손상이 장애의 필요조건”(p. 630)이라는 사실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이 모델이 특정 “피부색”이나 “간성” 등 소위 손상 외적인 특징을 장애와 연결시키지 않고, 오직 “손상을 지녔거나 손상을 지녔다고 추정되는 사람들만을 장애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p. 630-631), Tremain에 의하면 두 범주의 엄격한 구분은 “망상”에 불과하다(p. 631).

따라서 Tremain은 한편으로 사회적 모델의 “장애-손상 구분이 장애를 비의료화 하지만 동시에 손상된 몸을 의학적 해석학의 독점적 관할 하에 방치”(Hughes & Paterson, 1997, p. 330)한다는 Hughes & Paterson의 비판을 공유한다. 사회적 모델이 손상을 장애와 엄격히 구분하여 장애화 논의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실상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자신이 취하고 있는 후기구조주의적 장애 접근법이 “몸의 물질성의 이론적 제거”(Hughes & Paterson, 1997, p. 334)라는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이들의 의견에는 동조하지 않는다. 그는 후기구조주의의 반실재론적 접근법이 몸의 물질성을 부정하지도 않거니와, 그보다 “몸의 물질성이 몸을 만들어 낸, 즉 몸을 그러한 종류의 것으로 만들어 낸 역사적으로 우연적인 실천들과 분리될 수 없다”(Tremain, 2001, p. 621)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한다. 손상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Tremain은 손상을 “가치중립적인”(p. 621) 실재가 아닌 “지식/권력체제의 역사적 인공물”(p. 623)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손상의 구성성을 상술하기 위해 Tremain은 손상-장애 이분법과 형식적으로 유사한, 페미니즘 이론에서 이미 활발하게 진행된 섹스-젠더 이분법 논의를 원용한다. 그는 2세대 페미니즘까지도 광범위하게 수용되었던, “섹스는 자연의 소산이고 젠더는 문화의 소산”(p. 625)이라는 Rubin의 구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흔히 생물학적 실재로 간주되는 섹스가 사실상 “역사와 문화를 초월한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p. 626)라고 단언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로 그는 남녀 성별보다 상대적인 연령차가 사회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지녀 인칭대명사가 후자를 준거로 체계화되어 있는 나이지리아 “요루 바족”(Tremain, 2001, p. 626)의 사례나 “간성”(p. 628) 혹은 “양성”(Tremain, 2002, p. 37) 등 남녀 성별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후자의 예를 단지 비정상이라고 판단하는 의료계나 섹스가 문화적 구성물일 뿐이라는 입장에 특히 반발하는 분자진화학 등의 과학계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연구 대상을 탐구하고 이론화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특정 시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소위 자명한 과학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 역시 자연 그 자체를 여과 없이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다. Tremain(2001)은 Fausto-Sterling의 양성에 대한 연구에 근거하여 연구자들이 몸의 특정 화학물질을 “성적 호르몬”이라 명명함으로써 “몸의 화학을 젠더화했고, 이 조절 물질들이 남성과 여성의 발달에 있어 섹스와 상관없이 수행하는 광범위한 역할들을 비가시화했다”고 지적한다(p. 629). 요컨대 Tremain에 의하면 남녀 이분법에 근거한 섹스 또한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실재가 아니라 역사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구성된 것이다.

섹스는 이미 젠더화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젠더와의 구분이 무의미하고, 젠더 또한 단순히 생물학적 섹스에 각인된 문화적 의미로 볼 수 없다. Butler는 이러한 젠더를 “ ‘성적으로 구분된 자연’ 이나 ‘자연적 섹스’ 가 ‘담론 이전’에”, 문화에 앞서서, 그 위에서 문화가 행해지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표면으로 행사되고 설정되게 하는 담론적/문화적 수단”으로 보고 있다(버틀러, 2008, p. 97; cf. Tremain, 2001, p. 629). 즉, Butler는 젠더를 권력이 담론 이전의 자연적 섹스를 생산하기 위해, 즉 섹스를 자연화하고 물질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로 간주하는 것이다.

Tremain(2001)은 이러한 섹스-젠더 논의를 원용하여, 섹스가 객관적인 실재가 아닌 것처럼 손상 역시 환원 불가능한 본질이 아니라 생명권력의 생산적인 효과라고 주장

한다. 즉, 개인 차원에서 신체를 규율하고 집단적으로 인구를 조절하며 생명의 전 영역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생명권력이 “개인들을 생산적이고 통치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p. 631) 손상을 지닌 주체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Tremain은 손상을 지닌 주체의 생산기제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특정 정치적 담론(이른바 생명권력)의 효과로서의 손상들은 (예컨대) 인간의 기능과 구조, 역량, 지능, 능력 등 문화적으로 특수한 규제적 규범들과 이상들의 반복 및 재반복을 통해 주체들의 보편적 특징으로 물질화된다. 더 나아가 주체들의 보편화된 특징으로서의 손상들은 열등한 정체성 혹은 본질로 자연화되는데, 이 정체성과 본질 위에 손상들을 자연적인 것으로 물질화하는 역사적으로 우연적인 권력관계들을 위장하기 위해 문화가 작용한다 (p. 632).

손상은 규제적 규범과 이상의 반복적 적용으로 구성될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작용하는 권력이 은폐됨으로써 손상이 원래부터 객관적인 생물학적 실재인양, 즉 마치 그것이 담론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본질적인 물질이자 자연인양 물질화·자연화된다는 것이다. Tremain에 의하면 섹스가 이미 젠더이듯 손상 역시 처음부터 장애라고 할 수 있다. Tremain은 Shildrick & Price의 영국 장애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에 대한 분석이 이러한 손상의 물질화·자연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애생활수당(이하 DLA)은 돌봄과 이동의 두 영역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2013년 개인자립수당제도(Personal Independent Payment)의 도입 이후 과도기적으로 PIP와 함께 동시에 운영되고 있으며, Shildrick & Price의 연구 시점을 기준으로 영국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주는 대표적인 지원제도였다. DLA의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신청인이 과도하게 세세한 질문으로 구성된 신청양식을 직접 작성해야 하는데 Shildrick & Price는 이 신청양식과 수급신청인에 의해 수행되는 신청방식 모두를 문제 삼고 있다.

DLA 신청양식 상의 민감하고 세부적이며 중복되는 질문들은 일견하여 개인별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 같지만, Tremain이나 Shildrick & Price에게 이것은 “사회적 몸에서 동질적 본질로 작용하는 규제적 범주-손상-를 생산”하기 위한 “다양성”(Tremain, 2001, p. 633; cf. Shildrick & Price, 1996, p. 101)에 불과하다. DLA 양식 속에 확립된 “차이 및 개체화 시스템의 총체화시키는 효과는 개인성을 과하게 제한”(Tremain, 2001, p. 633)할 뿐인 것이다. DLA 신청양식에는 몸의 기능과 능력에 관한 규제적 규범들과 이상들이 전제되어 있고 이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몸들은 본질적으로 “열등하고, 다르며, 위협적이고, 통제가 필요한”(Shildrick, 1996, p. 98) 것으로 간주된다. 개개인에 대한 지나치게 세세한 정보들은 적절한 지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권력이 규제 실천을 통해 손상을 물질화·자연화하고 손상을 지닌 주체를 생산하는 수단이 될 뿐인 것이다. 신청양식 상의 개체화는 결국 “조정되고 관리된 차이”(Shildrick & Price, 1996, p. 101)에 불과하다.

Shildrick & Price는 이같이 개별화하는 동시에 총체화하는 권력의 “규율기술”(푸코, 2011, p. 235) 외에 수급신청인의 자기 감시와 자발적인 목종을 요구하는 수급신청방식에서 드러나는 권력의 작용방식에도 주목한다.

그녀(수급신청인)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감시하여 정상 기준들에 부합하지 못함을 복잡하고 세부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사실상 자신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미세한 권력의 모세혈관은 기능/기능장애의 규범을 다변화하며 몸속으로 이전보다 더 깊이 파고든다. 고백에서와 같이 모든 것은 억압적으로 추출되는 것이 아니라 면밀한 조사에까지 ‘자유롭게’ 말해져야 한다. 주체는 국가수당 수급의 성공 여부에 책임을 져야하고, 그런 만큼 더욱 조심스러워지고 관리가능하게 된다. 수당지급이 금지되면, 이것은 보고에 실패했기 때문일 것이다(Shildrick & Price, 1996, p. 100).

여기서 권력은 사법적 담론의 권력개념과 같이 강압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몸에 작용하여 각 개인이 자발적으로 규제적 규범에 예속되도록 하고 있다. 권력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복종시킬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푸코, 2011, p. 215) 이른바 유순한 몸을 구성하고, 끊임없이 감시하고, 평가하고, 분류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사회 통제망을 구축하여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요컨대, 손상은 본질적인 생물학적 실체가 아니고 구성된 것, 보다 구체적으로 권력의 생산적인 효과다. 소위 장애인을 지원한다고 하는 복지정책이나 제도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역할을 해 온 것이다.

보호시설, 소득지원 프로그램, 생활수준 사정, 산재 보상 수당, 특수교육 프로그램, 사회복귀 체제, 장애인 교통수단, 인공보철, 가정 돌봄 서비스, TV 자막 ARS 후원, 장애인 고용센터, 장애아동 포스터 캠페인, 산전검사 등이 이 확장된 제도 속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이와 관련된 여타) 실천들과 제도들, 정책들이 사회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창조하고, 분류하고, 항목화하고, 관리해 왔으며 이를 통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이를테면 신체적으로 손상되었다고, 정신이상이라고, 결함이 있다고, 정신질환이 있다고, 지체되었다고, 말을 못 듣는다고 객체화되어 왔다(트레마인, 2020, p. 28).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Tremain과 Shildrick & Price는 결론적으로 Butler가 여성의 성, 즉 섹스에 기반한 2세대 페미니즘의 정체성 정치를 비판했듯이 객관적 실체도 아닌 손상에 근거하여 정체성 정치를 옹호하는 장애 운동계, 특히

사회적 모델을 비판하고 있다. 손상과 장애를 엄격히 구분하고 장애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모델로서는 이러한 비판이 탐탁지 않겠으나, 이미 손상이 줄곧 장애였다고 간주하는 후기구조주의적 시각에서는 사회적 모델이 의료적 모델과는 다른 장애관을 확립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들의 비판이 향하는 곳은 바로 사회적 모델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정체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장애가 있다는 것(disabled)’이 단지 또 다른 고정된 정체성 범주, 즉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지니게 되는 정체성으로 간주되는 한 우리를 서로에게서 분리시키는 경계들은 그대로 남겨지게 된다(Shildrick & Price, 1996, p. 96).

Tremain과 Shildrick & Price는 하나의 동질적인 정체성이 단순히 차이를 구별하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Shildrick & Price는 Fuss를 인용하여, “정체성은 항상 타자의 배제, 비정체성(non-identity)에 대한 탄압 혹은 거절의 댓가로 쟁취된다”(Fuss, 1989, p. 103; Shildrick & Price, 1996, p. 106에서 재인용)며 “장애 정체성을 구성하는 경계가 그것의 타자들을 강하게 배제하며 유지된다”(Shildrick & Price, 1996, p. 97)고 비판한다. 결국 장애 운동이 장애인의 배제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지만 장애/비장애 이분법이 전제되어 있는 정체성 정치를 펼치는 이들이 자신들이 비판하는 바로 이 배제 문제에 일조한다는 것이다. Tremain(2001) 역시 이러한 시각에 동조하면서 정체성에 기반한 운동이 “배제적”일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위계적”이라며 장애인 운동 내부에서 이 운동이 추구하는 “권리와 인정의 요구에서 배제되었다고 느끼거나 그것들과 동일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한다(p. 635). Tremain은 또한 끊임없이 감시, 기록, 분류, 평가하는 규율권력의 속성으로 인해 “개별화하고 총체화하는 진단 및 사법적 범주들”이 세분화하며 끝없이 양산될 것이라고 비판한다(p. 635).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들이 주장하는 해법은 간단하다. 바로 정체성에 호소하지 않는 것이다. Tremain(2001)은 장애인 운동 역시 정체성에 호소하지 않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컨대 “‘우리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의 관점에서 요구를 공식화”할 것을 제안한다(p. 635). 그러나 정체성에 기반하지 않는 장애인 운동이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의 관점에서 기술된 요구가 과연 정체성 문제와 전혀 무관한 것인지 등에 대해 더 자세히 논하지는 않는다.

그보다 이들의 주된 관심은 시종일관 해체와 폭로에 맞추어져 있다. Shildrick & Price(1996)는 연구의 마무리 단계에서 “몸들의 분리를 세세하게 배치하는 정상화의 규제적 과정을 해체하고 비장애/장애 주체 자체의 안정성을 논박함으로써 우리는 부서진 몸의 경계들이 붕괴되길 희망한다”(p. 111)고 명시한다. Tremain(2001)은 비판적

장애학(Critical Disability Studies)의 어젠다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연적인 담론 대상을 생산하고 규제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증폭시키는 과학적, 사회적 담론들, 정책, 의료-사법적 실천 내에서 진리와 지식을 구성하는 기제들을 식별함으로써 장애가 손상으로 자연화되는 방식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어야만 한다(p. 635).

그러나 해체와 폭로 이후에 대한 이들의 대안은 무엇인가?

2. 반실재론적 장애 연구의 한계

사회학자이자 담론분석가인 Willig(1998)는 사회구성주의자, 예컨대 “담론분석가들이 해체 너머로 더 나아가서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혹은 심리학적) 실천의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주저해왔다”(p. 95)고 지적한다. 사회구성주의자, 특히 후기구조주의자와 같은 급진적 사회구성주의자들은 담론분석과 해체를 통해 주류 담론의 허구를 폭로하고 대안적 관점의 가능성을 보이고자 한다. 당연시 되어 오던 범주나 현상들을 의문시하면서 그것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Willig(1998)에 의하면 이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단지 “관찰자” 혹은 “해설가”로 머무르는 한계를 보인다(p. 95).

Willig는 그 원인을 “구체화(reification)의 책임에 대한 두려움”과 “연구 결과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대한 예리한 인식”에서 찾고 있다(p. 95). 사회구성주의자들은 억압받는 집단의 해방이라는 목적을 지니고 연구에 임하지만 특정 대안을 구체화할 경우 그 자체가 또 다른 제약이 될 가능성이 있고, 자신의 연구 결과가 특정 집단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찰자로서 비판하고 해체하는 역할에만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다.

Burr(1998) 역시 “실제로 여전히 구성주의자들과 담론분석가들은 특정 구성들이 구체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행동은 다른 이들에게 맡기고 ‘관찰자와 해설가’로 머무르는 것 같다”며 Willig의 시각에 동조하고 있다(p. 25). 앞서 상대주의 논의의 말미에 언급하였듯이 Burr는 담론과 물질성의 분리불가능성을 수용하면서 실재가 단순히 물질성을 지닌다는 사실 이상의 역할, 즉 진술과 행동의 근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Burr 역시 인정한 것처럼, 사회구성주의자들이 여전히 관찰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자신들의 문제의식과 비판의 발단이 된 그 현실, 즉 자신의 진술과 행동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그 실재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논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Burr에 있어서도 ‘실재’의 용도는 사실상 매우 제한적이다. 사회구성주의자들이 ‘관찰자와 해설가’로 머무르는 한, 이들이 상대주의자로 머물면서도 ‘무엇이든 허용된다’는 상대주의의 맹점을

피해가기 위한 실용적 용도 이상의 의미를 실재에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Butler에게서도 구체화의 책임에 대한 두려움을 발견할 수 있다. Butler는 섹스의 물질화·자연화 과정을 논하면서 이 과정에서 배제되어 물질화되지 못하고 “살아질 수도 없고 거주될 수도 없는 영역”(버틀러, 2003, p. 24)으로 밀려난 비체가 있음을 강조한다. 비체는 본질상 비체가 아니라 비체화된 존재로 남녀 섹스의 구성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작동하는 배제적 매커니즘 속에서 “구성적 외부”(p. 24)의 역할을 담당한다. 구성적 외부로서의 비체는 권력이 주체를 주체로 구성하기 위해 규범에 맞지 않는 것을 구분하고 배제하는 과정에서 주체에 대비되는 비주체로 역할하되 그 자신은 아직 독립적인 주체가 아닌 존재인 것이다. Butler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남녀 이원론에 근거한 섹스가 객관적인 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섹스를 자연적인 것인 양 물질화·자연화하는 과정에서 인식될 수도 없는 존재로서의 비체가 생산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 실존에 대해서도 언급하지만, 비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존재들인지 더 이상 자세히 규명하지는 않는다. Meijer & Prins는 한 인터뷰에서 Butler가 “비체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의 더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기를 주저하는 것 같다”(Meijer & Prins, 1998, p. 281)고 지적하고 있는데, Butler는 이를 인정하듯 예를 제시할 경우 “그 예가 그 외 모든 것의 표준이 된다. 그것은 전형적인 것이 되어 그 자신의 배제를 생산하기에 이른다”(p. 281-282)고 답한다. Butler의 대답은 비체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배제의 주체가 됨으로써 또 다른 비체가 생산되는 것 자체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배제적 매트릭스”(버틀러, 2003, p. 24) 상에서 물질화·자연화된 섹스를 날카롭게 비판한 입장에서 동일한 잣대로 비판받지 않으려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기도 하다. Willig가 지적한 것처럼 Butler 역시 구체화의 책임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판하고 해체하는 역할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Willig(1998)는 이러한 “지속된 자제주의(abstentionism)가 최상의 경우 도움이 되지 않고, 최악의 경우 위험하다”(p. 96)고까지 논평한다. 사회구성주의자들의 이러한 태도가 역설적이게도 이들이 비판하고자 했던 “현 상황(status quo)을 공고히”(p. 96)하는 우를 범하기 때문이다. Willig는 한계가 있고 악용의 소지가 다분하다 하더라도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무위(inaction)는 항상 행위의 한 형태”이므로 “관여하지 않으려는 헛된 시도로 관여하는 대신 우리는 사회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그 안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제고할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반실재론 논의 초두에 언급한 물질성에 대해서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다. 많은 사회구성주의자들이 반실재론적 입장에서 논의를 진척시킬 때 이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둔 듯 자신이 물질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어구를 덧붙인다(cf. 버틀러, 2003; Tremain, 2001; Shildrick & Price, 1996; Edley, 2001, Potter, 1998; Gergen, 2020). 그러나 문제의 초점은 이들이 물질성 자체를 부정하느냐의

여부에 있지 않고, 자신이 부정하지 않는 이 물질성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놓여 있다. Potter나 Gergen은 물질성을 부정하지 않되 이에 대해 더 이상 논하는 것도 거부한다면, Burr는 물질성과 담론을 불가분의 관계로 상정하며 이 물질성이 진술과 행동의 근거가 된다는 입장이다. Butler 역시 “물질성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의미화 작용과 결합되어”(버틀러, 2003, p. 70) 있다는 입장이지만 그 이유는 Burr와 차이가 있다. 물질이 언어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정하면 그 본질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남녀 이원론에 기반한 섹스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환원불가능한 출발점”(버틀러, 2003, p. 65)이라는 사실을 해체하고자 하는 Butler로서는 담론에 선행하여 언어 밖에 존재하는 외적 실재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즉, Butler는 물질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의미화작용을 거친 물질, 즉 물질화된 물질에 관심을 둔다. 보다 구체적으로 ‘환원 불가능한 순수한 물질로 간주되는 것이 어떻게 물질화되는지’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Kirby(2002)는 이와 관련하여 “물질 그 자체와 본질적인 무언가는 ... 그녀의 분석 대상이 전혀 아니”(p. 269)라며 다음과 같은 부연설명을 덧붙인다.

물질의 물질성에 대한 우리의 감각, 그것의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함과 물질적 강조는 Butler의 설명에서 형용할 수 없고 사유할 수 없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물질성이 재현을 넘어선다는 것만이 이것에 대해 알려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p. 269).

Kirby는 Butler에게 있어서 실재의 물질성이 언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언어로 환원될 수 없다는 사실만이 강조될 뿐 실재와 물질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Butler에게 있어 실재의 역할은, 그 이유는 다르지만, Burr에게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제한적이다. 이들에게 있어 문제는 물질성 자체를 부정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이에 대해 더 이상 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구성주의자들은 실재는 언어를 매개로 하지 않고서는 접근 불가능하다는 언명을 실재에 대한 기존의 지식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할 뿐 실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말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Butler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Tremain이나 Shildrick & Price 또한 Willig와 Kirby의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비장애/장애 이분법을 해체하고, 손상이 물질화·자연화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것으로 장애 문제가 해소되는가? 이들은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물질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손상과 장애의 실재에 대해 진지하게 논하고 있는가? 의미화작용을 거치지 않고 실재에 대해 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손상과 장애가 어떤 의미화작용을 거쳐 물질화·자연화되는지에

대해서만 기술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Siebers(2019)는 Butler의 이론에서 다루어지는 고통의 문제가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해석이 비장애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신체성을 매일 같이 경험하는 장애인의 복합적 체현의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현재의 몸 이론에서 고통은 거의 육체적이지 않음을 주목하라. 그것은 죄책감이나 사회적 억압의 고통에 근거할 가능성이 더 크다. 사회는 고통을 창조한다. ... 나는 사회에 의해 생성된 정신적 고통의 양을 과소평가하고 싶지 않다. 정신적 고통이 육체적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 ... 아직 많은 장애인들은 신체적 고통이 적임을 알고 있다. ... 매일의 커다란 도전은 신체의 통증을 감당하는 것, 아침에 침대에서 나오는 것, 저녁에 올라오는 통증의 우물을 극복하는 것,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 고통의 원인이 되는 수많은 일상의 장애물을 만나는 것이다(p. 115).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 실재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과 이와 관련된 “정치적 변화”(Siebers, 2019, p. 150)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Siebers는 후기구조주의자들의 시각이 신체적 통증이 사회적 행동과 정치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신체성은 장애의 몸이 갖는 현실의 일부이다. 만약에 체현이 장애인들의 경험의 한 원인이 된다면, 그것을 정신적 상태로 잘못 제시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조직화하는 데 해로운 영향을 줄 것이다(p. 142).

Shakespeare(2008) 또한 “차별과 편견”이 장애인의 삶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나 이들이 “손상된 몸과 마음을 가졌다는 곤경에서 비롯되는 어려움에 직면”(p. 12)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단언하며, 관점과 맥락의 차이와 무관하게 손상이 그 자체로 지니는 문제에 주목한다.

사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난독증과 조현병은 항상 존재해왔다. 뇌전증은 특정 부족집단이 신들림으로 정의내리더라도 뇌라는 장기의 현상으로 남아있다. 많은 상황에서 손상이 광범위한 문화적, 정치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Shakespeare, 2008, p. 13).

Shakespeare(2008)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심장이상, 위장문제, 청력손실”(p. 13) 등의 다양한 고통을 예로 들며, 이것을 장애가 아닌 단순한 차이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본다. 손상으로 인한 곤경이 실재한다는 것이다. Shakespeare(2008)는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다운증후군이 단순히 하나의 사회적 구성물이라면 이것이 다운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의료적·수술적 개입들을 없애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p. 13) 반문하고 있다.

Shakespeare(2008)는 한걸음 더 나아가 포스트모더니즘이 “해방적 메타담화와 보편적 윤리규범”에 반대함으로써 “하위집단의 정치적 목표들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러한 접근들의 잠재력을 훼손”시키지는 않는지 의문을 표한다(p. 13). Siebers와 마찬가지로 Shakespeare 역시 사회구성주의적 장애 연구가 손상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이 입장의 탈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한때 포스트모더니즘 노선에서 연구하기도 했던 Shakespeare(2008)는 이 담론의 “난해하고 접근불가능한 언어와 논점들”을 비판하며 “푸코가 학문적 커리어를 쌓는 데는 유용하나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는 부적합하다”고 혹평한다(p. 13).

Siebers와 Shakespeare의 이러한 입장은 신체성을 무시할 수 없는 손상과 장애의 실재에 대해 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치적 변화를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무관심한 Tremain과 Shildrick & Price에 대한 비판으로 읽힐 수 있다.

V. 결론

1. 요약 및 제언

본 논문에서는 사회구성주의적 장애연구의 상대주의 및 반실재론적 성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상대주의 논의에서는 사회구성주의가 장애 범주의 낙인효과와 억압적 성격에 주목하여 이 범주가 특정 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 구성되었음을 강조함으로써 대안적 관점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사회구성주의가 기반하고 있는 상대주의적 인식론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다양한 관점의 존재 가능성을 강조함으로써 일견 해방적인 듯 보이지만 결국 정치적·윤리적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상대주의를 견지한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정치적·윤리적 문제에 직면할 경우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거나 상대의 입장을 비판하기 어려운 고착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사회구성주의적 장애연구가 장애가 객관적인 범주가 아니라 구성되었을 뿐이라고 단언함으로써 이 범주와 결부된 억압적 현실에 대한 타파가능성 역시 제고되는 것 같지만, 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적대적인 관점을 비판할 근거 또한 제거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이른바 ‘무엇이든 허용된다’는 상대주의의 맹점을 피해가기 어려운 것이다. 일각에서는

물질성과 담론의 분리불가능성을 수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이어지는 장에서 논하게 될 ‘담론에 선행하는 실재란 없다’는 반실재론적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즉, 이것은 상대주의의 맹점을 피해가기 위해 여하간의 실재를 상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실재에 대해 진지하게 논하지 않는 사회구성주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해법인 것이다.

반실재론 논의에서는 특히 Foucault와 Butler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Tremain과 Shildrick & Price의 후기구조주의적 손상 연구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특히 섹스-젠더 이분법과 손상-장애 이분법을 등치시키면서 Butler 논의의 틀을 그대로 가져와 권력의 규제적 실천을 통해 손상을 지닌 주체가 어떻게 물질화·자연화되는지 드러내고자 한다. 이들은 물질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이에 대해 더 이상 자세히 논하지 않고, 사회적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지만 그 현실을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대신 관찰자 및 해설가로만 머무르는 한계를 보인다.

신체성을 간과하고 대안제시에 미온적이라는 사실은 사회구성주의적 장애 연구가 지니는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이 직면한 억압적 현실이 편견이나 선입견 등 심리적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은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주장하듯이 장애란 구성되었으며 손상 또한 권력의 효과일 뿐이라고 선언하거나 장애 정체성을 해체하는 것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손상으로 인한 곤경 및 고통과 장애의 복합적인 체현의 측면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만 한다. 물론 한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 소거되고 손상이 그 사람의 전인적 특징인 듯 묘사되며 장애인이 단지 서비스대상으로 환원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손상으로 인한 곤경을 고려한다는 것은 손상에만 집중함으로써 장애의 원인을 개인의 결함에서 찾는 의료적 모델로 회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의료적 모델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어 온 것은 장애를 개인적 문제로만 간주하여 사회구조적 문제를 간과하거나 의료과정에서 장애인이 철저히 객체화되어왔다는 사실이지 의료과정이나 손상을 근거로 한 지원과 편의 제공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손상으로 인한 곤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의료적 모델로의 회귀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손상을 근거로 한 지원과 정당한 편의 제공 외에 사회적 모델에서 강조하듯이 장애인의 배제와 차별을 양산하는 사회적 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배제와 차별을 경험한 집단으로서의 장애 정체성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배제와 차별을 당한 이가 없는데 그것을 양산한 사회적 장벽을 철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정체성은 사회적 모델이 손상과 장애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손상 문제를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사회의 억압적 구조에서 비롯된 장애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것처럼 사회적 측면, 특히 사회경제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서는 곤란하다. 장애 정체성을 논할 때는 개개인의 손상과 장애 체현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구성주의에서 강조하는 낙인, 편견, 선입견과 같은 심리적, 문화적 차원의 장벽을 철폐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 다만 이 문제가 사회구성주의에서 강조하듯이 장애가 구성되었을 뿐이라고 선언하고 장애 정체성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장애인이 직면한 차별과 억압적 현실을 타개해나가기 위해서는 이상의 세 가지 차원에서의 노력이 동시에 맞물려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한 가지만을 강조하여서도 어느 한 가지를 간과하여서도 안 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거나 재정비하여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는 등의 구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질 때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장애인 당사자이다. 집단으로서의 장애 정체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는 지점이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장애인을 양산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원 구도를 고착화하여 차별과 억압적인 현실을 가중시킨다고 보는 사회구성주의적 관점 하에서 이러한 실천은 어려워 보인다.

2. 연구의 한계

본 논문의 사회구성주의적 장애 연구에 대한 비판은 실재론적 시각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이 입장의 배경, 논점, 한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구성주의자들에 의해 제기된 낙인과 정체성 정치 문제에 대한 실재론자의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문에도 짧게 언급하였지만 신체성과 장애의 복합적 체현을 강조하며 후기구조주의적 장애 연구를 비판한 현상학적 시각에 대한 논의도 별도로 심화 분석할 필요가 있다(cf. Hughes & Paterson, 1997; 김성애, 2004; 김성애, 2005). 이 같은 한계점은 향후 연구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Biklen, D. & Duchan, J. F. (1994). "I am Intelligent": The social construction of mental retardation. *JASH, 19*(3), 173-184.
- Burr, V. (1995). *An Introduction to social constructionism*. New York: Routledge.
- Burr, V. (1998). Overview: Realism, relativism, social constructionism and discourse. In Parker, I. (Eds.), *Social constructionism, discourse and realism. Inquiries in social construction* (p. 13-25).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 Burr, V. (2015a). *Social constructionism* (3rd ed.). New York: Routledge.
- Burr, V. (2015b). Social constructionism.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 Behavioral Sciences*, 2nd ed. Vol. 22, 222-227.
- Butler, J. (1993).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New York: Routledge.
[버틀러, 주디스. (2003).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김윤상 역. 서울: 인간사랑.]
- Butler, J. (1990).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버틀러, 주디스. (2008). **젠더 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조현준 역. 서울: 문학동네.]
- Chae, H. T. (2005). A study on constructivistic understanding of disability and application of the understanding in special education: focused on learning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7*(3), 179-199.
[채희태 (2005). 구성주의적 장애 이해와 그 특수교육학적 적용: 학습-장애 문제를 중심으로. **특수아동교육연구, 7**(3), 179-199.]
- Cromby, J. & Nightingale, D. J. (1999). What's wrong with social constructionism? In Nightingale, D. J. & Cromby, J. (Eds.), *Social constructionist psychology: A critical analysis of theory and practice* (p. 1-19).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Crow, L. (1996). Including all our lives: renewing the social model of disability. In Barnes, C. & Mercer, G. (Eds.), *Exploring the Divide* (p. 55-72). Leeds: The Disability Press.
- Danziger, K. (1997). The varieties of social construction. *Theory & Psychology, 7*(3), 399-416.
- Dudley-Marling, C. (2004). The social construction of learning disabilitie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37*(6), 482-489.
- Edley, N. (2001). Unravelling social constructionism. *Theory & Psychology, 11*(3), 433-441.
- Foucault, M. (1975). *Surveiller et punir. Naissance de la prison*. Paris: Éditions Gallimard.
[푸코, 미셸. (2011).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 오생근 역. 서울: 나남신서.]
- Fuss, D. (1989). *Essentially Speaking: Feminism, Nature and Difference*. London: Routledge.
- Gergen, K. J. (1985). The social constructionist movement in modern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40*(3), 266-275.
- Gergen, K. J. (2015). *An invitation to social construction* (3rd. ed). London: SAGE.
[Gergen, K. J. (2020). **사회구성주의로의 초대**. 한유리 역. 서울: 박영스토리.]
- Gustavsson, A. (2004). The role of theory in disability research - springboard or strait-jacket? *SJDR, 1*(1), 55-70.

- Hacking, I. (1999). *The social construction of wha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arper, D. (2011). Choosing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In Harper, D. & Thompson, A. R. (Eds.),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mental health and psychotherapy: a guide for students and practitioners* (p. 83-97). Oxford: Wiley-Blackwell.
- Hong, E. S. (2007). Suggestion on special education of constructivism.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2(1), 77-96.
[홍은숙 (2007). 구성주의 인식론이 특수교육에 주는 시사점. *특수교육학연구*, 42(1), 77-96.]
- Hruby, G. G. (2001). Sociological, postmodern, and new realism perspectives in social constructionism: Implications for literacy research. *Reading research quarterly*, 36(1), 48-62.
- Hughes, B. & Paterson, K. (1997). The social model of disability and the disappearing body: toward a sociology of impairment. *Disability & Society* 12(3), 325-340.
- Hughes, B. & Paterson, K. (1999). Disability studies and pheonmenology: the carnal politics of everyday life. *Disability and Society* 14(5), 597-610.
- Jo, H. J. (2011). Disability studies revisited.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2(4), 1-25.
[조한진 (2011). 장애학에 대한 재고찰.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4), 1-25.]
- Jones, S. R. (1996). Toward inclusive theory: disability as social construction. *NASPA*, 33(4), 347-354.
- Kim, D. H. (2019). Challenge of disability studies. Seoul: Maybook.
[김도현 (2019). *장애학의 도전*. 서울: 오월의 봄.]
- Kim, S. A. (2004). The standpoint, limit, complement of radical constructivism in terms of understanding children with severe disability.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5(1), 51-68.
[김성애 (2004). 중도 장애를 가진 아동이해에 대한 급진적 구성주의의 입장 · 한계 · 보충.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5(1), 51-68.]
- Kim, S. A. (2005). The task of special education teacher on diagnosis & education for children with (severe)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6(1), 147-176.
[김성애 (2005). 현상학적 입장에서 본 특수교육교사의 (중증)발달장애아 진단 및 교육적 과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1), 147-176.]
- Kirby, V. (2002). When all that is solid melts into language: Judith Butler and the question of matter. *International Journal of sexuality and gender studies*, 7(4), 265-280.
- Lynch, M. (1998). Towards a constructivist genealogy of social constructivism. In Velody, I. & Williams, R. (Eds.), *The politics of constructionism* (p. 13-32). London: SAGE Publications.
- Lee, J. (2014).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social model: a study focusing on the disability definition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25, 33-56.
[이지수 (2014).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 가진 의미와 한계: 장애 개념정의와 정체성 정치 중심. *한국장애인복지학*, 25, 33-56.]

- Meijer, I. C. & Prins, B. (1998). How bodies come to matter: an interview with Judith Butler.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23*(2), 275-286.
- Molloy, H. & Vasil, L. (2002). The social construction of Asperger syndrome: the pathologising of difference? *Disability & Society, 17*(6), 659-669.
- Nightingale, D. J. & Cromby, J. (1999). *Social constructionist psychology: A critical analysis of theory and practice*.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Papert, W. (1980). *Mindstorms: children, computers, and powerful ideas*. Cambridge: Perseus Publishing.
- Potter, J. (1998). Fragments in the realization of relativism. In Parker, I. (Eds.), *Social constructionism, discourse and realism* (p. 27-45).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 Priestly, M. (1998). Constructions and creations: idealism, materialism and disability theory. *Disability and Society, 13*(1), 75-94.
- Sampson, E. E. (1993). *Celebrating the other: A dialogic account of human nature*. Hemel Hempstead: Harvester Wheatsheaf.
- Shakespeare, T. (2008). Debating disability. *Journal of medical ethics, 34*(1), 11-14.
- Shildrick, M. & Price, J. (1996). Breaking the boundaries of the broken body. *Body and Society, 2*(4), 93-113.
- Siebers, T. (2008). *Disability Theory*. Michigan: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Siebers, T. (2019). **장애 이론. 장애 정체성의 이론화**. 조한진 외 공역. 서울: 학지사.]
- Söder, M. (1989). Disability as a social construct: the labelling approach revisited. *European Journal of special needs education, 4*(2), 117-129.
- Speed, B. (1991). Reality exists O.K.? An argument against constructivism and social constructionism. *Journal of family therapy, 13*(4), 395-409.
- Spivey, N. N. (1997). *The constructivist metaphor: Reading, writing, and the making of meaning*. San Diego: Academic Press.
- Tremain, S. (2001). On the government of disability. *Social theory and Practice, 27*(4), 617-636.
- Tremain, S. (2002). On the subject of impairment. In Corker, M., Shakespeare, T. (Eds.), *Disability/postmodernity: embodying disability theory* (p. 32-47). London: Continuum.
- Tremain, S. (2005). *Foucault and the government of disability*. Michigan: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트레마인, 셰리. (2020). **푸코와 장애의 통치**. 박정수, 임송이 역. 서울: 그린비.]
- Wendell, S. (1996). *The rejected body: Feminist philosophical reflections on disability*. New York: Routledge.
- [웬델, 수잔. (2018). **거부당한 몸. 장애와 질병에 대한 여성주의 철학**. 강진영, 김은정, 황지성 역. 서울: 그린비.]
- Willig, C. (1998). Social constructionism and revolutionary socialism: a contradiction in terms? In Parker, I. (Eds.), *Social constructionism, discourse and realism* (p. 91-104).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 Yang, L. & Gergen. K. J. (2012). Social Contruction and its Development: Liping Yang interviews Kenneth Gergen. *Psychol Stud*, 57(2), 126-133.
- Young, R. A. & Collin, A. (2004). Introduction: Constructivism and social constructionism in the career field.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4(3), 373-388.

<국문 초록>

사회구성주의적 장애 연구의 비판적 고찰 : 상대주의와 반실재론적 성격을 중심으로

이 주 화

[목적] 본 논문은 사회구성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이자 논쟁점이기도 한 상대주의와 반실재론적 성격을 두 축으로 하여 장애학 내외의 사회구성주의적 장애 연구들을 검토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방법]** 특수교육학, 심리학, 장애학 내 사회구성주의적 장애 연구 문헌 중 상대주의와 반실재론적 성격을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문헌을 선별하여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결과]** 사회구성주의가 근간으로 하는 상대주의적 인식론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다양한 관점의 존재 가능성을 강조함으로써 일견 개방적인 듯 보이지만, 이 대안적 관점들에 동등한 타당성을 부여하게 되면 이른바 ‘무엇이든 허용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어 결국 정치적·윤리적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후기구조주의적 손상 연구는 권력의 규제적 실천을 통해 손상을 지닌 주체가 어떻게 물질화·자연화되는지 분석하며 반실재론적 성격을 드러낸다. 후기구조주의자들은 물질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이에 대해 더 이상 자세히 논하지 않고, 현실을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대신 관찰자 및 해설가로만 머무르는 한계를 보인다. 이들은 손상에 근거하여 정체성 정치를 옹호하는 장애 운동계를 비판하며 정체성 해체를 역설하지만 그것만으로 장애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 **[결론]** 장애인이 직면한 차별과 억압적 현실을 타개해나가기 위해서는 손상으로 인한 곤경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사회경제적, 심리적, 문화적 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맞물려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장애인 당사자이므로, 장애인의 정체성 해체는 적절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

주제어 : 사회구성주의, 상대주의, 반실재론, 후기구조주의, 장애의 사회적 모델

논문 접수(Received): 2021. 02. 09. / 심사 시작(Examined): 2021. 02. 09. / 게재 확정(Accepted): 2021. 03. 11.